

01 교회소식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

만민의 성도들은 ARS(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위급할 때는 물론 삶의 매순간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_ 팔복 시리즈 2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며 하늘에서도 상급을 받는다.

03 기획특집

명심하지 못하는 이유

신앙생활에서 명심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명심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섯 가지로 나눠 그 이유를 살펴본다.

04 간증

기쁨과 소망의 빛 되신 사랑의 주님

성결의 복음으로 영육 간에 축복받은 에스토니아 그리고리 콜레소프 목사와 시공 초월한 권능의 증인이 된 강혜정 집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597호 2013년 9월 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24시간 성도들을 위한 ARS(자동응답서비스)

성도들을 지키며 19년간 은혜와 감동, 치료와 응답을 선물해



우리 교회는 언제, 어디서, 누구나 편리하게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교회(www.manmin.org)와 GCN 방송(www.gcnetv.org) 홈페이지에서는 설교 동영상과 MP3 파일, 텍스트는 물론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ARS(자동응답서비스)다.

ARS는 환자를 위한 기도, 이재록 목사의 3분 설교,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하루를 마치는 기도, 운전을 위한 기도, 찬양을 서비스로 제공한다.

1994년 9월 4일에 개설된 이후로 매일같이 성도들 곁을 지켜온 ARS는 위급할 때 전화하면 언제라도 달려와 주는 고마운 친구 같은 존재가 됐다. 전화 버튼만 누르면 가정, 일터, 사업터 등 24시간 어디서나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고 3분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와 화상 등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성도들이 이재록 목사의 ARS 환자기도를 통해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사람들마다 고혈압, 뇌출혈, 골절, 감기, 배탈, 고열, 통증 등 크고 작은 질병 등을 치료받았다. 그리고 각종 시험이나 사업 계약 등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 기도를 받고 형통하게 마쳤다는 간증도 쉽게 들을 수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매주 새로운 설교를 녹음하는 3분 설교는 농어촌 및 산간, 도서 지방 등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의 성도나 군 복무 중인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있다. 많은 성도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가정과 일터로 향하는 버스나 전철 안에서 3분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활기차게 생활한다.

ARS 회선을 헌물한 조일곤 장로는 "만민선교원을 다니던 어린 딸의 만성중이염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기도하던 중에 헌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가 치료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도 영육 간에 넘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자녀도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영혼구원에 힘쓰고 있습니다."라며 감사해했다.

처음에 8회선으로 시작한 ARS는 성도들의 사용증가와 남선교회 회원(1970년생)들의 헌물로 2003년에 12회선으로 증설됐다. 지금은 나래 인터넷(주)에서 20회선을 사용하고 있다. 한 번에 20명까지 통화할 수 있는 회선이다.

해마다 성도들의 ARS 접속량이 증가하고 있어 (주)KT에서 운영하는 02-152(교환 3200, 7000번) 전화를 상설, 통화량 폭주에 대비하고 있으며 위급한 환자의 경우 이전 회선을 이용하면 신속히 기도받을 수 있다.

ARS(자동응답서비스) 안내

24시간 어디서나 전화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 10번
- 운전을 위한 기도 : 20번
- 3분 설교 : 30번(매주 새로운 설교)
- 환자를 위한 기도 :
- 40번(한국어), 4번(영어)
- 42번(불어), 43번(중국어)
- 감동의 찬양 : 50번
- 은혜의 찬양 : 60번
- 하루를 마치는 기도 : 70번

이용방법

1. 먼저 전화번호 02-830-5320을 누른 뒤
2. 신호음이 떨어져 안내방송이 나오면
3. 안내방송에 따라 교환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 환자 기도는 02-152 (교환 3200, 7000번)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은혜받고 싶을 때, 응답받고 싶을 때, 보호받고 싶을 때, 찬양듣고 싶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 남녀노소 만민 성도들 곁에는 ARS(자동응답서비스)가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4)

●●●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여덟 가지 복에 대해 알려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악이 없고 선한 마음으로, 아무 욕심이 없이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중심이 되면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애통이란 몹시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통에는 갖가지 슬픈 일로 인한 육적인 애통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영적인 애통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1. 육적인 애통과 영적인 애통

자신의 삶이 버겁고 힘들어 한탄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슬픔 속에서 나오는 애통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성결을 위해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위로하시며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가난해서

서글프고, 병약하고 무능해서 한탄합니다. 또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며, 자녀가 말씀을 부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만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니 눈물을 흘리며 속상해하지요. 이처럼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슬픔으로 애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괴롭고 슬픈 일을 당해도 기뻐하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기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아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 자녀는 슬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난 기뻐할 것이 없는데요. 근심거리가 가득한데 어떻게 기뻐합니까?”라고 반문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영적인 애통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2.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1) 죄를 지었을 때 회개의 애통을 합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깨닫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통회자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애통이지요. 그런데 회개의 애통을 하고도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짜증 내지 말고 기뻐하지 마세요. 상대가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화를 내고 말지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죄악이 발견될 때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불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노력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2) 사명 감당을 제대로 못했을 때 회개의 애통을 합니다

만일 직분자이고 일꾼인데 기도하지 않

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는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나는 사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감당했는지, 혹여 게으르거나 나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명을 맡으면 책임이 따르고, 열심히 하지 못하면 회개거리가 생기니 사명을 맡지 말고 교회만 열심히 다녀야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갚기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 봉사해야 합니다. 만일 사명을 맡고도 충성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중심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제가 사망의 길로 갈 때 사랑으로 애통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애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애통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슬피 울며 따르던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습니다(눅 23:28).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망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을 위해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범죄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신해 회개하며, 상대가 진리로 행할 수 있도록 애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험에 들어 힘을 잃은 영혼들을 권면해 주며 힘을 실어 주되, 자신의 일과 같이 애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지요.

4) 영혼 구원을 위해 애통합니다

가족, 일가친척, 이웃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멸망으로 가는 무수한 영혼들을 위해 애통해야 하지요. 나라와 민

족에 대한 애통, 교계에 대한 애통, 하나님 나라를 휘방하는 일들에 대해 애통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애통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 값을 찾아 드리기를 위해 애통한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높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명예와 권세, 건강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합니다.

3. 애통하는 자가 받는 축복

하나님께서 영적인 애통을 하는 자에게 반드시 위로와 응답을 주십니다.

먼저, 회개의 애통을 하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심으로 위로하시지요.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사람이 중심에서 회개할 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큰 은혜가 임합니다.

다음으로, 사명 감당을 위해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함의 내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가령,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의 권세와 담대함이 필요하다면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개종시키고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이 외에도 형제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때,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와 나라, 세계 선교를 위해 애통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게 위로와 응답을 주십니다. 범죄한 사람이 거듭나게 하시고, 선한 일꾼을 보내 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며, 세계 선교를 활발히 이루게 하시지요. 이처럼 영적인 애통은 하늘의 상급이 되며 자신은 물론, 하나님 나라에도 큰 유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슬픔으로 인한 육적인 애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영적으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영위할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귀한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자녀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사별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나는 왜 명심하지 못하는 것일까?”

평소 명심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학교나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쉽지 않다.

많은 것을 듣고 배웠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새겨두지 않으니 행함이나 열매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명심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 크든 작든 하나님 말씀을 명심해 변함없이 지켜 행해야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사람이 명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섯 가지로 나눠 살펴볼 때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 명심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란다.

1 ●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타고난 기(氣)적인 영향으로** ●
 사람의 마음은 영적으로 받이나 그릇에 비유할 수 있다. 선천적으로 받이나 그릇이 좋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가령, 마음이 모래밭의 토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진흙의 토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 사막에는 기둥 하나 세우기 쉽지 않은 것처럼 모래밭의 토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집중력이 약해 명심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람은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며 어떤 것을 결심했다 해도 시험 환난이 오거나 주변에 복잡한 상황이 생기면 어느새 그 마음이 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명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명심한다는 것은 마음 그릇에 담아놓는 것과 같다. 만일 그릇의 깊이가 얕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담긴 것이 떨어진다. 이처럼 마음 그릇이 얇은 사람은 범사에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즉흥적이며, 인내하지 못하고 주변 상황과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모래 같은 토질이나 얇은 그릇이라 해도 물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섞으면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근본에까지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열심히 마음밭을 변화시켜 나가면 결국 토질이나 그릇이 바뀌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명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2 ● **육체의 결여가 있어서** ●
 우리가 무엇을 명심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심고 행함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성장하면서 학교나 가정에서 교육을 통해 습득이 되고 훈련이 되어 하는데, 그렇지 못해 육체의 결여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덜렁대고 대중대중 건성으로 한다. 이러한 육체의 결여를 없애고 명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반복적으로 되뇌어 마음에 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때 느낌이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느낌으로 강하게 입력시키느냐에 따라 마음에 심어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령의 감동함 속에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통해 자신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니 강한 느낌으로 마음에 심어진다.
 또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시작한 일에 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행함으로 옮기는 능력이 결여돼 있어서 명심안 되는 경우로, 이런 사람은 메모를 해서 잘 보이는 데 붙여 놓고 마음에 되새기며 지켜 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신 6:6-9).

3 ●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
 육신의 생각은 비진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자기 기준과 자기 입장에 맞춰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앞에서 “예.” 대답은 하지만 그것이 자기와 맞지 않을 때는 듣고 흘려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는 것도 자신의 비진리의 마음을 좇

아 ‘이 정도쯤이야.’ 하고 내 유익을 구하고 사심, 욕심, 정욕을 좇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심하는 사람이 되려면 육신의 생각을 차단하고 비진리의 마음을 신속히 벗어버려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신뢰는 명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정 상대를 신뢰한다면 상대의 말이 마음 깊이 심어져 잊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것이다.

4 ●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사랑과 정성을 드린다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상대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옆 테이블의 대화 내용에 솔깃하고 있다면 결코 상대의 말을 명심할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과를 좋아한다면 사과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 사다주고 싶어진다. 그만큼 상대에게 마음을 주고 있으니 상대가 사과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명심할 수 있다.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첫사랑의 뜨거움 속에 온 마음 다해 달려갈 때에는 ‘무엇이 하나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온통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하다. 만일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다면 그만큼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분산돼 어느 순간 흐려지고 명심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첫 사랑을 회복해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사랑과 정성을 드리며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명심할 수 있다.

5 ● **한마음이 되지 못해서** ●
 우리가 누군가와 한마음이 되면 그 마음과 뜻에 맞춰 기쁨과 감사로 순복하게 된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기도는 습관을 좇아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이 명심된 사람은 그대로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한마음이 되어 명심한 것은 굳이 머리에 기억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영으로 일궈 행함 자체로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도 하나님과 한마음이 돼 있지 않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마음을 영으로 일궈 영의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머무르는 곳에 내 마음과 눈도 머무르게 되니 자연히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된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9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3.9.1-9.7
 September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치료와 응답의 공의 1
- 천국 1-3
- 알곡교회 22-25
- 믿음의 분량 1-5
- 참세기 강해 69-73
- 요한일서 강해 17-21
- 믿음을 처방하시니 21

GCN TV 설교

- 육과 영 5-9 (이수진 목사)
- 자기발견 2 (이수진 목사)
- 주도면밀한 삶 (이미영 목사)
- 영 1 (신동호 목사)
- 탕자의 비유 4 (정구영 목사)
- 'GCN TV특강' - 십자가의 도 10-11 (정구영 목사)

간증 프로그램

- 크리스천 투데이 43-47
- GCN 간증스페셜 5-8, 10, 11, 13
- 만민의 간증 14-16, 1, 2

해외성회 시리즈

- 독일연합대성회 3
- 페루연합대성회 종합편

찬양 프로그램

- 찬양과 경배 (3) 61-66
- GCN 금요찬양 스페셜 9-14
- 만민 찬양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GCN 생방송 시청 중 어머니 시력이 좋아졌대요”

강해정 집사 (2대대 14교구)

2013년 8월 5일 밤, 만민 하계수련회 첫날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뜻밖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지요. ‘이 시간에 어머니가 웬일이시지?’ 시골에 혼자 사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순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환한 목소리에 이내 마음이 놓였지요.

“애야, 네 말대로 GCN 생방송으로 수련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선명하게 보여 너무 신기해서 전화했단다!”

어머니는 20년 동안 앓아 온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3년 전에는 양안 백내장 수술을 하셨지요. 그 후로도 사물이 흐릿하게 보여 6개월 주기로 영양제를 맞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교육 후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은 수많은 성도가 치료받아 간증하는 모습을 시청하시던 중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민 하계수련회 생방송 시청 중에도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신다고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의 어머니가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타 교회 출석 중인 어머니는 이 일이 있은 후 GCN 방송(www.gcntv.org)을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시청하며 행복해하십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결의 복음은 영육 간에 축복을 주는 소중한 복음입니다”

그리고리 콜레소프 목사 (에스토니아 진리의 근원교회)

만민중앙교회와의 첫 인연은 에스토니아 라이프 TV와 신문을 통해서였습니다. 2003년 ‘이재록 목사 초청 러시아 연합대성회’ 관련 보도였지요. 성회 시 나타난 하나님 역사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 후 7년이 흘러 페이스 북에서 만난 손영락 집사를 통해 교회 사이트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성결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알게 됐지요.

‘2010 에스토니아 연합성회’를 통해 확실한 비전을 갖고

2010년 7월 초, 큰딸 아나스타시아가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6년 된 복통을 치료받았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장벽을 무너뜨린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였지요. 저는 큰 감동을 받고 7월 하순, 핀란드에서 개최된 만민중앙교회 부설 MMTC(만민세계선교훈련원) 주최 ‘십자가의 도’ 캠프에 참석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재록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나아가 권능과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참임을 증거하시는 그분의 사역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필요도 없이 그해 9월, 만민중앙교회의 지교회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열린 ‘2010 이재록 목사 초청 에스토니아 연합성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도왔지요. 성결의 복음을 만난 저의 가장 큰 변화는 성결에 대한 열망과 선교사역에 관한 확실한 비전을 갖게 된 점입니다.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해 권능의 현장을 목도하며

저는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던 중, 지난 8월 초에 큰딸과 함께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직접 만나 뵙고 해외 22개국에서 참석한 만민 하계수련회에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지요.

수련회 첫날, 저는 놀라운 권능의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교육 시작과 함께 굵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당회장님께서 기도하시자 두꺼운 구름층이 풀리고 비가 멎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요.

교육 후 당회장님 기도로 국내외 많은 성도가 치료받아 기뻐하며 감격하는 모습 역시 큰 감동이었습니다. 셋째 날 당회장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캠프파이어 시간에는 찬양을 통해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지요.

하계수련회를 통해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메신저가 되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추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리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더 좋은 천국을 어떻게 침노(마 11:12)하는지 그 방법을 분명히 제시해 주십니다.

저는 성결의 복음을 스카이프(안드로이드폰, 아이폰, 컴퓨터에서 손쉽게 인터넷 전화, 영상통화, 문자나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인터넷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후에는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이 인도하시는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통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이에 성결의 복음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매일 밤 열리는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에스토니아에서 일상화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처럼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메신저가 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양만민교회 충북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거제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창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8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경기도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